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각종 시험대비 무료강의

글쓰기

강의 노트

지식해설가
권오규

카카오TV ▶ 지식해설가
blog.naver.com/kogg22
E-mail : kogg22@naver.com

제 1 장

글쓰기의 의미와 과정

출제 포인트

1강 말하기와 글쓰기 차이 구분하기

말하기

- 상황과 맥락 공유
- : 비언어적 수단을 보조적으로 활용
- : ()
- 언어외적 요소 = 눈빛·표정·어조·속도·크기·몸짓
- 쌍방향 표현 가능
- : 상대방의 반응 확인 → 즉각적 수정이 가능
- : 문장의 완결성 or 정확한 내용에 주의하지 않는 경우 많음
- 시간과 공간의 제약 → 일시적 and 제한적

글쓰기

- 언어 이외 요소(비언어적 요소)는 거의 개입되지 않음
- : 글로만 내용 전달 → so 내용전달이 극히 제한적
- ⇒ 이모티콘은 공식적 글쓰기에서 자제
- 글쓰기의 규범에 맞춘 쓰기 훈련 필요
- 글의 형식과 목적에 충실
- : 정확하고 분명하게 의사 표현
- 여러 제약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문제의 인식과 해결을 위해서는 말하기보다 더 효과적
- : 기록성과 보존성이 강한 문자를 수단으로 사용
- so 시공간의 제약 뛰어넘음
- 사고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음
- so 복잡하고 체계적인 ()을 표현에 유리

문제풀이

01 다음 중 글쓰기 특성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알맞은 것은?

- ① 시공간적 제약이 큰 편이어서 일시적이고 제한적임
- ② 복잡하고 체계적인 사상을 표현하기에 적당함
- ③ 상대방의 반응에 의해 즉각적 수정이 가능함
- ④ '초메시지'에 의해 많은 것을 느끼고 읽어내는 것이 가능함

문제풀이

02 다음 중 글쓰기가 말하기보다 더 효과적인 경우는 무엇인가?

- ① 여러 가지 비언어적 요소들의 도움이 매우 필요한 경우
- ②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그 자리에서 내용을 바로 수정하고자 할 경우
- ③ 청자와 동일한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소통하고자 하는 경우
- ④ 복잡하고 체계적인 사상을 표현하고자 할 경우

제 1 장

글쓰기의 의미와 과정

출제 포인트

2강

글쓰기의 과정

사고의 과정	• 글쓰기 과정 = 사고의 구체화 과정 : 생각 → 글 → 생각 : 글 = 지속적으로 사고에 영향을 줌 • 글 자체 = 사고력의 깊이를 드러내기 쉽지 않음 : 글 자체로 사고력을 선불리 판단하면 곤란함
자기 확인과 표현의 과정	• 글쓰기 과정 = 자기 확인과 결정의 과정 : 사고과정은 최종적으로 표현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글 자체로 사고력을 판단할 수 없음 • 글쓰기를 통한 의사결정 훈련 = 학문 or 사회생활 영위에 도움
문제의 인식과 해결의 과정	• 글쓰기 = 문제에 대한 구체적 이해와 해결에 도움 :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과정
가치의 발견과 개선의 과정	• 글쓰기 = 가치를 찾거나 기존 가치 개선에 기여 : 가치 부여 및 정당화
의사소통의 과정	• 글쓰기 = 사회적 소통행위이자 실천적 행위 : 글을 통해 사회적 소통과정에 참여 : 정서적 감동 + 논리적·이성적 설득 → 사회 변화



문제가 01 글쓰기 과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다양한 사회적 소통에 참여하고 언론을 여는 데 기여하는 의사소통과정
- ② 복잡하고 세밀한 자기 확인과 표현의 과정
- ③ 문제의 인식과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제적 과정
- ④ 사고의 과정이므로 언어로 표현되면서 사고가 추상화 됨
- ⑤ 글 그 자체로 글쓴이의 사고력을 판단할 수 있음

제 1 장

글쓰기의 의미와 과정

출제 포인트

3강

글쓰기의 목적 및 필요성

사적 글쓰기	• 자신의 경험 기록 및 자기표현 → 의사소통 → 자신과 주변을 성찰 : ex) 일기 + 메모 + 낙서 + 여행기 + 자신만의 레시피 + 편지글 • 다른 정보 or 기억과 결합하여 지식으로 축적되어 전달 가능
공적 글쓰기	• 사회 참여로서의 적극적 글쓰기 : 공동체와 관련된 주제와 내용 → 다수 대중이 읽도록 공적 매체에 발표 : ex) 학술적 연구결과 발표 : 공동체 가치 지향과 제시 → 삶의 문제 해결 가능하도록 하는 사회적 협력의 바탕을 마련하는 행위
() 글쓰기	• 목적 = 정보전달과 설득 : 객관적 사실에 대한 정보 전달 : 주기 주장을 타인이 납득 및 공감하도록 함 : 정확한 사실과 논리적 전개 중요 → 객관적·분석적 표현 + 명확한 단어선택
창조적 글쓰기	• 자기표현 욕구에 의해 → 자신의 존재성을 드러내는 글쓰기 : 중심적 일 = 주관적 감정 or 태도 or 생각 밝히는 것 • 언어에 의한 감정과 정서 전달 한계로 인한 특별한 묘사 : 감각적 비유, 수사학적 문체
학술적 글쓰기	• 지식 습득과 확인 및 학술적 의사소통 : 글쓰기 = 의사표현의 방법 = 인식과 사고의 과정 → 이를 체계화해 정리하는 지적인 기술

※ 글쓰기의 궁극적 목적 = 교양 있는 지식으로서 삶을 완성 하는 것

□ 타인과의 소통 ⇨ 교양 있는 지식인으로서 삶을 완성하는 것

: 자신과 공동체의 문제를 인지하고 해결하기 위해

→ 상호 의사소통을 하며 삶의 지혜를 나누어 가짐으로써 삶을 완성



01 사적 글쓰기와 거리가 먼 것은?

① 여행기 ② 학술적 논문 ③ 일기 ④ 자기만의 레시피

제 1 장

글쓰기의 의미와 과정

출제 포인트

4강

좋은 글이 갖추어야할 요건

글의 동기·목적과 독자	• 글의 동기와 목적에 따라 글의 양식·문체·과정이 달라짐 : 동기와 배경 잘 알고 씀 → 글의 ()와 목적에 맞는 표현 • 누가 읽을지에 대한 고려 : 독자에 따라 어휘·문체·내용수준 달리해야 함
내용의 충실함과 정확성	• 풍부한 지식과 경험 → 내용 충실한 글 (풍부함과 설득력) : 내용의 정확성과 적절성, 진실성, 객관성, 정확한 자료 근거 : 적절한 자료 선택 : 이미 확립된 권위에 기대어 인용 → 인용방법 지키기
글의 표현	• 적절한 단어 선택 : 추상적 개념은 개념정의, 다양한 뜻으로 쓰이면 한자나 영어 병기 • 선택된 어휘를 적절히 배치 : 동의어는 반복하지 않음 + 무의미한 표현들 or 잉여적 부분 삭제 : 상투적 표현을 배제 • 지나치게 긴 문장을 길게 쓰지 않도록 함 • 문장은 명료하여 전달이 분명하게 씀 : 모호성이 있는 문장이라고 해서 다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님 → 의도적으로 쓰기도 함 • 문장의 기본은 호응(주어와 서술어, 수식어와 피수식어)
글의 짜임	• 부분과 전체의 통일성 있고 짜임새 있는 글 : 문장과 문장, 단락과 단락, 문장과 단락 등이 유기적 연결 : 표현 의도에 맞는 글의 구성법 선택 → 시간 순서, 인과관계 등 : 어조와 문체의 일관, 문단 내부의 일관성



문제 풀이 01 다음 중 좋은 글의 요건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 ① 의도와 목적에 맞는 표현 ② 심오하고 독특한 문체
③ 독창적 소재와 파편화된 짜임 ④ 복잡하고 체계적인 사상
⑤ 필자의 권위와 개성적 문체 ⑥ 전달력 있는 짜임과 통일성

제 1 장

글쓰기의 의미와 과정

출제 포인트

5강

도서선택 방법과 읽기 방법

도서선택 방법과 글 읽기	모티머 J. 애들러의 독서 방법
- 직접 정보를 수집해 선택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 자세 - 교수, 선배, 동료 학생에게 도움 청하기 - 참고문헌을 참고 - 도서관 검색프로그램 이용 - 신문, 잡지 서평란 - 책 소개 사이트 - 글 읽기 - 글쓰기의 가장 중요한 알맹이가 되는 지식과 문제를 발견하게 해 줌 - 글을 잘 쓰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 좋은 글을 반복하여 읽음 - 글 읽기의 방법 - 모든 책을 진지하게 정독할 필요는 없음 - 독서의 목적과 수준, 독서의 종류에 따라 독서방법 달라짐	점검독서 - 골라 읽기 = 예비독서 - 계통을 세워 띄엄띄엄 골라 읽는 기술 - 책 종류와 주제, 목적과 의도, 전체적 구성 파악 -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책을 읽어내고 내용을 파악 - 목차와 색인, 표제와 서문, 책 커버의 선전문구로 전체적 내용 파악 - 구성내용 띄엄띄엄 읽기 = 통독하는 표면읽기 - 모르는 단어나 문맥 무시하고 빨리 통독 - 서점에서 책을 고를 때, 오락을 위해 신문잡지를 읽을 때, 여행정보 찾기, 참고문헌 찾기 ↓ 분석독서 - 시간 제약 두지 않고 깊은 이해 위한 독서 - 완전히 자기 것이 될 때까지 철저하게 읽기 - 책의 구조파악→책의 내용파악→책에 대한 비평 - 논증방식파악, 핵심단어나 문장 파악, 결론검토 ↓ 종합독서 - 가장 복합적이고 조직적인 독서 - 하나의 주제에 대하여 두 종 이상의 책을(몇 권의 책을) 관련지어서 읽는 방법 - 문헌조사 독서 방식



서점에서 책을 고를 때나 오락을 위해 신문 잡지를 읽을 때 필요한 독서기술은?

① 초급독서 ② 분석독서 ③ 점검독서 ④ 종합독서

제 1 장

글쓰기의 의미와 과정

출제 포인트

6강

디지털 환경에서의 글쓰기

□ 정보력과 편의성→글쓰기의 진지한 사고과정, 자기 확인 및 표현의 과정을 볼 수 없음

: 글을 쓰는 속도가 빨라지고 현장 글쓰기가 강조, 쓰기와 말하기의 구별이 어려워 짐

: 비통사적 문장, 문장의 비완결성, 이모티콘 사용

□ 펜으로 쓰는 것보다 빠름 → 의식의 흐름 포착이 수월, 문장이 간결, 사고의 전개가 빠름

: 감각적이고 강한 표현과 축약어 사용

: 글의 양이 늘어나고 자료의 나열이 심해짐 → 타인과 자신의 주장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음

□ 대중지향성과 상호 소통력이 확대

: 기존 이데올로기 반대 의견 및 대항이론 제시가 쉬워짐

□ 디지털 활용 글쓰기 긍정적 지향

: 손쉽게 옮기고(복제) 변형 → 자료보관과 글쓰기의 소통을 위해 획기적 편리함 제공

: 감각성, 다양성, 개성을 추구(감각적 즉물적 표현)

-고정된 의미(x), 형식에 얽매임(x) → 대중성과 순수성의 긍정적 결합

: 익명성 -상상력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자연스러운 글쓰기 가능(개성적인 다양한 글쓰기 가능)

: 상호적 글쓰기는 온라인 상 건전한 토론 문화 정착에 기여

→ 각종 미디어 자료를 글쓰기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요구 됨, 다양한 관점에 대한
고려와 사고 능력이 필수



문제 풀이 01 디지털 글쓰기의 확대로 나타난 현상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빠른 전파력으로 기존질서체계 및 이데올로기와 상반되는 새로운 개념의 등장이 쉬워지고 있다.
- ② 불특정 다수가 읽게 되기 때문에 문장 완성도 및 문맥적 연결을 더욱더 고려한다.
- ③ 자료의 복제와 변형이 용이해져 소통을 위한 획기적 편리함을 제공한다.
- ④ 글쓰기와 말하기의 구별이 어려워짐에 따라 맞춤법 규정을 무시하는 경우가 흔해졌다.

7강

I 부 1장 종합 문제풀이

01 글쓰기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볼 수 있는 것은?

- ① 비언어적 수단을 보조적으로 사용한다.
- ② 시공간적 제약이 큰 편이다.
- ③ 상대의 반응에 의해 즉각적 수정이 가능하다.
- ④ 즉각적인 반응이 있어 글의 수정이 용이하다.
- ⑤ 동일한 공간에서 상대와 접촉하면서 소통한다.
- ⑥ 시공간적 제약이 커 순발력이 요구되며 일시적이고 제한적 소통수단이다.

⑦ '초메시지'에 의해 많은 것을 느끼고 읽어내는 것이 가능하다.

⑧ 복잡하고 체계적인 사상을 표현하기에 적당하다

Q) 말하기가 지니는 특성이 아닌 것은?

Q) 말하기에 비해 글쓰기가 더 효과적인 부분은?

02 글쓰기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 ① 자기표현을 통한 사회적 소통
 - ② 쌍방향의 표현과 즉각적 대응 능력 향상
 - ③ 문제에 대한 인식과 해결
 - ④ 사상의 단순화와 도식화
 - ⑤ 가치의 발견, 재발견
 - ⑥ 초메시지의 효과적 활용
- Q) 글쓰기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03 글쓰기의 과정이 지니는 특성 중 잘못된 서술은?

- ① 글쓰기는 인식과 사고의 과정이 아니라 최종적 표현의 수단이다.
- ② 글쓰기는 문제의 인식과 해결의 과정이다.
- ③ 글쓰기는 가치를 개선하고 재발견하는 데 기여한다.
- ④ 글쓰기는 사회적 소통 행위이다.

NOTE 타인을 정서적으로 감동시켜 사회를 움직여 변화시킬 수 있음

04 글쓰기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은?

- ① 문제의 인식과 해결을 위한 구체적·실제적 과정이다.
- ② 글 그 자체로 필자의 사고력을 판단할 수 있다.
- ③ 글은 사회를 움직여 변화시키는 힘을 가진다.
- ④ 복잡하고 체계적인 사상을 표현하기에 적당하다.
- ⑤ 비언어적 수단을 보조적으로 활용한다.
- ⑥ 복잡하고 체계적인 사상을 표현하기 어렵다.
- ⑦ 글 자체로 필자의 사고력 깊이를 판단할 수 없다.
- ⑧ 글쓰기의 과정은 인식과 사고의 과정이다.
- ⑨ 글쓰기의 과정이 사고력 깊이를 드러내는 것이다
- ⑩ 초메세지에 의해 많은 것을 느끼고 읽어낼 수 있다.
- ⑪ 문제인식과 해결 위해 말하기보다 효과적이지 않다.

05 좋은 글이 갖추어야 할 요건과 거리가 먼 것은?

- ① 부분과 전체의 통일성이 있고 짜임새가 있음
- ② 글의 목적과 의도는 처음부터 고려할 필요 없음
- ③ 내용이 충실하고 정확함 및 충실하고 정확한 자료
- ④ 문장은 명료하여 전달 내용이 분명하게 드러남
- ⑤ 의도와 목적에 맞는 표현
- ⑥ 심오한 사상과 독특한 문체
- ⑦ 전달력 있는 짜임과 통일성 및 정확한 표현
- ⑧ 독자를 고려한 어휘, 문체, 내용 수준
- ⑨ 글의 의도가 독자의 요구에 부합해야 함
- ⑩ 어떤 경우에도 모호한 표현은 안 됨
- ⑪ 독창적인 소재와 다층적 해석 가능성
- ⑫ 독자의 요구보다 필자의 생각이 언제나 중요함
- ⑬ 문장이 모호하고 길어지더라도 심표 등의 문장 부호를 사용하면 안 됨

06 읽기의 방법으로 부적절한 것은?

- ① 복잡한 현대사회에서는 모든 책을 진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해야 함
- ② 정보화 사회에서는 상황에 맞는 독서를 해야 함
- ③ 비판적 사고와 가치판단이 뒤따르는 독서를 해야 함
- ④ 독서를 통해 적극적 반성 및 통찰로 삶의 질을 변화시켜야함
- ⑤ 정보를 찾거나 단순히 오락을 위한 독서에서는 조직적인 골라 읽기를 함

07 오락을 위해 신문 잡지를 읽거나 서점에서 책을 고를 때는 읽는 방법은?

- ① 인용 참고 주석서 함께 보면서 내용을 즉시 확인
- ② 제시된 지식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확인
- ③ 핵심 단어와 핵심 문장, 논증의 방식을 파악
- ④ 모르는 단어문맥을 무시하고 통독하는 표면읽기
- ⑤ 표제나 서문, 목차와 색인을 통해 전체적 내용 파악
- ⑥ 요점이 되는 부분을 띄엄띄엄 골라 읽음

NOTE 점검독서

= 짧은 시간에 많은 책을 읽고 내용 파악해야 할 때

= 모든 종류의 독서에서 가장 처음에 해야 할 책읽기의 방법

NOTE 종합독서

= 최고 수준의 독서기술 + 하나의 주제에 대하여 몇 권의 책을 서로 관련지어서 읽는 가장 복잡하고 조직적인 독서수준

제 2 장

글쓰기 윤리

출제 포인트

1강

인용과 참고

- 인용이란? = 남의 말 or 글 → 나의 말 or 글을 끌어다 쓰는 것
- : 타인의 생각과 글을 참고해 빌려 쓰는 것 = 학술적 글쓰기에서 당연하고 필요한 일
- 인용의 이유
- : 타인의 글을 비판적으로 논의 및 해석하기 위해
- : 공통 or 상방된 견해를 인용 → 논의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
- : 권위 있는 의견 도움(인용) →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강화하기 위해
- 인용여부의 결정 기준 = 피인용자와 그 저작에 원천성이 있는가?

- 논문을 쓰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글을 참고하여 빌려 쓰는 경우 연구자는 적절한 대목에서 인용한 타인의 글이나 생각의 출처를 주석이나 참고문헌을 통해 철저하게 밝혀야 함
- NOTE** 교과서에 나올 정도로 이미 확립된 개념이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론 서술하는 문구
= 인용 표시(x) + 출처를 밝히지 않아도 됨
-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을 활용했으면 반드시 누구의 것인지를 밝히고 그 저작자의 공(credit)을 인정해야 함.
- 출판된 것이든 아니든, 글로 쓰인 것이든 말로 된 것이든 반드시 인용표시나 저자 표시를 해야 함.
- 타인이 쓴 단어나 어구를 인용할 때, 타인의 생각, 의견 혹은 이론을 자신의 용어로 완전히 바꿔 썼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함
- 통계자료, 예시자료를 빌려올 때에도 그 출처를 밝히는 것이 원칙.

문제 풀이

01 다음 중 연구 윤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논문은?

- ① 다른 연구자의 독창적 연구를 출처를 밝히고 자신의 논문에 인용하였다.
- ② 자신의 논문 중 전체의 8~9할을 다른 연구자의 논문에서 인용했다.
- ③ 인용이 너무 길어져서 일부분만 출처를 밝혔다.
- ④ 자신이 전에 쓴 논문의 내용을 출처를 밝히고 인용했다.
- ⑤ 다른 논문에 이미 인용된 내용은 재인용 표시를 하여 인용했다

제 2 장

글쓰기 윤리

출제 포인트

2강

표절

전면표절 (가장 비윤리적)	- 타인의 글을 그대로 베껴서 쓰는 것 - 타인의 논문/단행본 일부를 베껴 쓰는 것 - 인터넷 등에서 다운로드 하여 그대로 옮겨 쓰는 경우 - 과제물 구매와 양도
부분표절 (모자이크식 표절)	- 출처를 밝히지 않고 중요한 부분을 부분적으로 베껴 씀 - 타인의 저작물에 있는 특별한 표현이나 아이디어를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무단 사용 - 글의 구성, 곧 논리 구조와 형식을 도용하여 쓰는 경우도 해당 - 인용된 자료에 대해 인용 표시를 하지 않거나 출처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은 것 -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나 문장을 그대로 가져오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바꾸었지만 출처를 밝히지 않았거나 문장 구조를 그대로 복사하는 것 - 출처를 밝혔음 → but 인용을 과다하게 함 + 인용방법이 부정확함 - 출처를 밝혔는지 않았는지 자신의 저작물에서 주요 부분을 이루는 타인의 저작물에서 많은 단어와 아이디어를 복사해 와 자신의 독창적인 부분이 주를 이루지 못한 것. - 출처를 밝히고 인용표시를 했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자신의 생각이 주를 이루지 못하고 타인의 글을 짜깁기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 역시 표절에 해당. - 출처를 밝히되 그 내용이 부정확한 경우 - 인용을 정확하게 하지 않은 경우 - 예를 들어 인용이 길어졌을 때 일부분만 출처를 밝히는 경우 - 직접인용과 간접인용을 분명하게 구분하지 않은 경우
자기표절	자신의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체나 거의 많은 부분을 인용하면서도 적절하게 출처를 밝히지 않고 새로운 것인 양 다시 사용하는 것
중복제출	한 과목의 과제물 제출했던 것을 다른 과목 과제물로 그대로 제출 or 사실을 밝히지 않고 일부 변경 및 짜깁기하여 제출



문제 풀이 01 다음 중 표절행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① 인용된 자료에 대해 인용표시, 즉 출처를 표시하지 않았다.
- ② 인용이 길어져서 일부분만 출처를 밝혔다.
- ③ 자신의 저작물의 일부를 다른 논문에서 인용할 때 출처를 밝히지 않고 사용했다.
- ④ 원저작물의 단어나 문장을 자신의 것으로 바꾸고 출처를 밝혔다.
- ⑤ 확립된 개념이어서 인용표시를 하지 않았다.
- ⑥ 출처를 밝혔으나 전체적으로 타인의 글을 짜깁기했다.
- ⑦ 표, 그래프, 데이터 및 그림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논문에 가져다 썼다.

제 2 장

글쓰기 윤리

출제 포인트

3강

자료의 변조와 위조

※ 자료 조작의 문제 = 데이터의 위조와 변조

변조	• 변조 = 실제 내용을 바꾸어 제시 or 사실을 다르게 서술 : 연구관련 재료, 장비 내용을 조작 + 연구방법 조작으로 성공적 실험으로 보이게 함 : 설문조사 결과나 실험으로 얻어진 데이터 및 연구결과 변경 및 고의적 누락 : 유리한 데이터만 취하고 불리한 데이터 은폐
위조	• 위조 = 의도적으로 속일 것을 전제로 없는 사실을 실제로 있는 것처럼 꾸미는 행위 : 허위로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및 결과를 만들고 기록, 보고하는 행위
연구부정행위	▪ 보고서를 제출하는 순간까지 아직 관찰되지 않은 것, 곧 예상되는 연구 결과를 마치 이미 도출된 결과인 양 보고하는 것 역시 데이터의 조작. ▪ 연구 기록을 의도적으로 파괴하거나 문제가 된 연구의 발표나 출간된 내용의 증거가 될 연구 기록을 제대로 보관하지 못하거나 잃어버린 것도 연구부정행위로 간주. ▪ 관찰 기록 등 모든 기재사항은 함부로 삭제하거나 여백으로 남겨 두어서는 안 됨 ▪ 보고 된 결론은 기록된 데이터 또는 관찰에 정확히 근거해야 함. ▪ 관찰된 것 중 선택된 어떤 것만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것은 모두 보고해야 함. ▪ 모순되는 데이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고하지 않는다면 이 역시 자료 조작의 연구부정행위임 ▪ 기록 노트의 모든 페이지에는 날짜와 서명이 있어야 함

문제 풀이 01 타인의 다른 저작물의 일부를 원저자를 정확하게 밝히고 널리 알려진 형식을 사용해 자신의 저작물에 이용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문제 풀이 02 타인의 저작물을 적절하게 인용하거나 허락받지 않고 원저작물의 정보, 아이디어, 어구 등을 자제와 자신의 것인 척하는 행위(속임수)를 무엇이라 하는가?

문제 풀이 03 표절(剽竊)이라는 단어의 한자와 영어표기인 'plagiarism'의 라틴어 어원에 공통적으로 들어 있는 뜻은?

문제 풀이 04 연구와 관련된 재료, 장비 및 과정 등을 조작하는 경우, 설문조사 시 조사 내용을 조작하는 경우, 실험 또는 설문조사의 결과로 얻어진 데이터 또는 연구 결과를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 기록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 등을 무엇이라 하는가?

4강

I 부 2장 종합 문제풀이

01 표절행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① 인용된 자료에 대해 인용표시를 하지 않음, 즉 출처를 밝히지 않았음
- ② 인용이 길어져서 일부분만 출처를 밝혔음
- ③ 자신의 저작물(자신이 썼던 논문)의 일부를 다른 논문에서 인용할 때 출처를 밝히지 않고 사용함
- ④ 원저작물의 단어나 문장을 자신의 것으로 바꾸고 출처를 밝혔음
- ⑤ 출처를 밝혔으나 전체적으로 타인의 글을 짜깁기함

02 표절을 하지 않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행동)이 아닌 것은?

- ① 마감일에 쫓기지 않도록 하기위해 글쓰기 시간표를 짜서 시간조절을 함
- ② 자료를 정리할 때 출처(글쓴이, 서명, 출판사, 출판연도, 내용 페이지)를 명확하게 표시해 둠
- ③ 자료의 출처는 다른 사람의 것과 자신의 아이디어를 분명하게 구분하여 기록함
- ④ 타인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 가능하면 남이 쓴 글을 읽지 않음
- ⑤ 인용의 원칙이나 방법을 숙지하고 이에 따라 인용
- ⑥ 자료의 출처는 가능한 한 직접 확인하고 다른 사람이 제시한 것을 그대로 베끼는 일을 하지 않음
- ⑦ 인터넷상 자료는 검색이 가능하므로 주소를 쓸 필요 없음

03 표절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것은

- ① 과제물의 구매와 양도 ② 모자이크식 표절
- ③ 자기 표절 ④ 부분 표절 ⑤ 전면 표절
- ⑥ 적절한 출처 표시 ⑦ 중복 제출

04 다음 중 연구 윤리를 제대로 지킨 것은?

- ① 논문 발표 때까지 실험 결과가 나오지 않아 예상되는 결과(추측된 결과)로 논문 작성
- ② 다른 연구자의 독창적인 내용을 출처를 밝히고 인용
- ③ 관찰된 것 중 연구결과와 모순되는 데이터는 폐기하고 보고하지 않음
- ④ 확립된 개념이어서 인용표시를 하지 않고 사용
- ⑤ 자신이 전에 쓴 논문 가운데 한 단락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썼음
- ⑥ 자신이 전에 쓴 논문 중 한 단락을 출처를 밝히고 썼음
- ⑦ 인터뷰 녹취록에서 식별자를 알아 볼 수 있는 표지를 없앴고(삭제하고) 기록을 보고함
- ⑧ 연구가 종료된 후 관찰기록을 폐기처분함
- ⑨ 본인의 연구결과를 인용표시 없이 2개의 학회지에 동일하게 게재함
- ⑩ 일부 연구결과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과장함
- ⑪ 다른 연구자의 부정행위를 알고 있었으나 보고하지 않음
- ⑫ 연구기록의 일부를 잃어버려 예상된 연구결과를 보고함
- ⑬ 연구기록 노트에 날짜를 쓰고 서명 함
- ⑭ 관찰된 것 중 관련된 것은 모두 보고함
- ⑮ 앙케트 질문서에서 개인 식별 기록을 삭제했음

05 다음은 어떤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가?

- 실험, 관찰, 시뮬레이션을 거치지 않고 허위로 결과나 데이터를 만들어 내는 행위
- 제대로 설문 조사를 하지 않고 응답 내용을 거짓으로 꾸미는 행위